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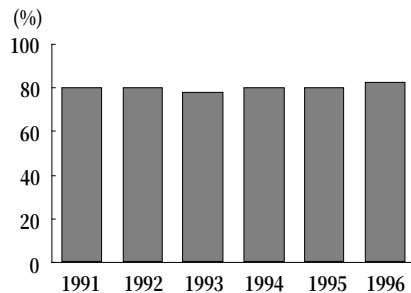
<미국 화학경기 전망>

화학경기 연착륙속 석유화학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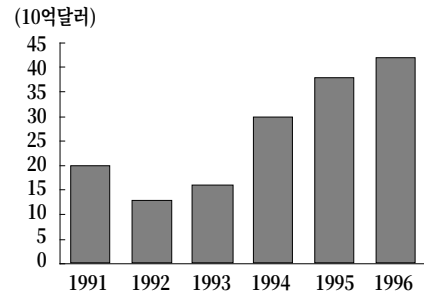
96년 미국 화학경기는 연착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플랜트 및 설비투자는 95년의 50%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97년에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R&D투자도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또는 99년까지는 심각한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보다는 메탄올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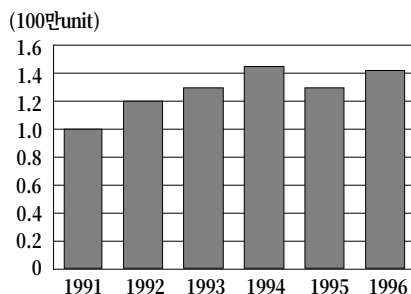
미국의 화학산업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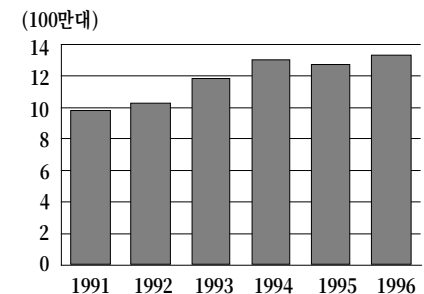
미국 화학산업 수익현황(세후)



미국의 건설경기 추이



미국의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96년 생산증가율은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upont은 화학산업의 주요 부문이 자동차·섬유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농약 및 의약, 수출 등은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6년 자동차 및 건축부문은 95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여 한자리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가구 및 부품산업도 위축, 관련 화학산업이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화학협회(CMA)는 95년 3690억달러에 달했던 미국 화학산업의 판매액이 96년 378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익도 강세를 보여 95년의 340억달러에 육박하는 339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1년 430억달러에 머물렀던 화학제품 수출도 96년 64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미국 화학산업계는 96년에도 첨단설비 구축에 325억달러를 투입, 첨단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효율성 증대로 인해 화학산업의 고용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96년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예산의 분산이 화학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GOP전략 등이 환경부문의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정부는 Toxic Release Inventory확대 등의 환경안전에 대해 진보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Hazardous Waste Identification Rule을 포함한 RCRA (Resource Conservation & Recovery Act) 법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PA의 활동은 예산 삭감으로 다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12월 기준 이자율 하락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경제지표는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의 강세, 일본 무역적자 심화, 유럽의 통화통합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GDP성장률도 2.3~3.3%로 낮은 수준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전망(1996)				
(단위 : %)				
구 분	1995	1996	증감률	
<미국경기>				
GDP(1987=10억달러)	5,511.9	5,639.5	2.3	
수 요(1987=10억달러)	3,683.3	3,761.2	2.1	
산업생산지수(1987=100)	122.0	123.0	2.7	
건 설(100만unit)	1,334	1,421	6.5	
자동차내수(100만unit)	12.6	13.1	4.0	
기업자금흐름(10억달러)	627.5	662.3	5.5	
개인당수입(10억달러)	6,045.2	6,311.2	4.4	
<화학프로세스산업>				
수출입(10억달러)	1,128.8	1,160.6	2.8	
생산지수(1987=100)	115.6	117.1	1.3	
<화학산업>				
수출입(10억달러)	368.6	386.7	4.9	
생산지수(1987=100)	125.1	129.9	3.8	
평균가동률(%)	80.6	81.7	1.4	
생산자가격지수(1982=100)	142.7	144.3	1.1	
고용인원(1000명)	582.3	583.2	0.2	
평균수입(달러/시간)	15.66	16.1	2.6	
수 출(10억달러)	58.4	68.4	17.2	
수 입(10억달러)	38.5	41.8	8.5	

경제의 저속성장과 보조를 맞추어 화학산업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전반적으로 M&A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며 자산 판매 규모가 130억~1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부문의 M&A는 89년 절정에 달해 290억달러에 달했다. 96년 M&A 대상은 스페셜티케미칼기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외국기업의 미국 화학기업 인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극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6년 상반기 석유화학은 예상외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기는 서서히 회복되나 석유화학은 1/4분기에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이 기초 원자재 및 플라스틱의 재고량이 바닥나는 2/4분기를 기점으로 구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 다소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메탄올 생산기업의 수익이 낮아지고, 암모니아 생산은 미국의 비료 수요증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틸렌 가격은 유도품 시장의 위축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올레핀 가격은 96년

상반기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96년 1/4분기 에틸렌의 컨트랙트가격은 95년 4/4분기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4분기는 정기보수 실시로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필렌가격은 극동아시아의 AN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전까지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에는 AN 수출로 수익을 올렸으며 96년에도 이부문에서는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프로필렌도 에틸렌과 비슷한 상황으로 96년 하반기의 경기회복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타디엔은 유럽의 수입증가로 6월경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타디엔 가격은 95년 4/4분기 수준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6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탄올시장은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1월초 이미 1/4분기 컨트랙트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95년 12월부터 벤젠 및 P-X의 수요강세로 주도된 아로매틱제품의 가격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4분기 신규공장 가동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나 중반이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 97년초에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P-X생산기업들은 96년 상반기까지 계약가격이 안정권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스파트가격은 2/4분기말까지 초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X 수요는 유도품 수요증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도 점차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96년초 이미 원재료비가 인상되어 O-X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벤젠은 점차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독일의 가솔린 함량규제로 벤젠 수요가 줄어들고 톨루엔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SM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예측불허한 상황으로 회복될 조짐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6년 1월들어 PE가격이 파운드당 5센트로 1센트 인상됐다.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시장은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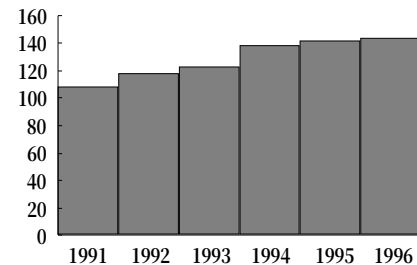
미국의 스페셜티케미칼 시장현황

(단위 : 100만달러, %)

구 분	매 출	수행정도	증감률
접착제	4,900	최대	4
살균제	1,155	평균	4
촉 매	1,610	"	4
건축용화학제품	2,500	"	3
화장품첨가제	995	"	4
염 료	1,370	"	4
난연제	665	"	4
향료 및향수	1,755	최대	6
식품 첨가제	3,010	평균	6
산업용코팅	7,900	"	2
이온교환수지	220	"	4
윤활유첨가제	1,623	"	1
오일용화학제품	874	"	4
페인트첨가제	320	"	3
제지용첨가제	735	"	3
안 료	1,040	"	5
플라스틱첨가제	2,920	"	4
실란트	900	"	2
스페셜티계면활성제	1,775	"	3
수처리제	2,475	최대	3

고무 · 플라스틱 생산추이

(Index : 1987=100)



현재 PS 구매는 다소 활기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주요 폴리머의 구매는 3월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5년 미국의 플라스틱산업은 매출규모가 94년수준과 비슷했으며 재고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미국의 플라스틱 생산은 94년대비 3.4% 증가했으며 총매출 및 수출을 포함한 내수 판매는 94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95년 중반이후 파운드당 12센트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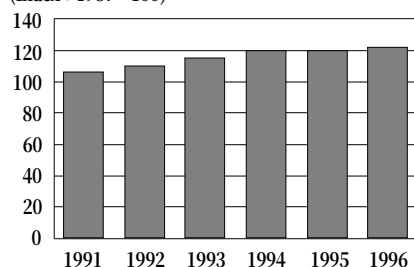
범용 열가소성플라스틱의 매출규모가 94년기준 1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LDPE 및 LLDPE는 4.4% 감소했다.

미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가에서는 LDPE 수요가 증가해 재고수준이 낮고, 가격이 다소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Dow는 12월의 LDPE가격 인상에 이어 1/4분기에도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5년 HDPE 판매는 0.3% 증가했는데, 95년10월 이후 4/4분기 중국의 구매가 늘어난 때문으로 가격은 1/4분기 회복을 기점으로 점차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P가격도 1월들어 인상되었으며, 96년 판매는 약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94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펄프 · 종이생산추이

(Index : 1987=100)



미국의 OTC의약품 매출현황

(단위: 10억달러, %)

구 분	브랜드	일반의약	합 계	증감률
1989	34.16	3.27	37.43	NA
1990	38.43	3.45	41.88	11.89
1991	43.6	3.56	47.12	12.51
1992	51.96	3.69	55.65	18.10
1993	54.00	4.57	58.57	5.25
1994	56.34	6.35	62.69	7.03

96년 서유럽의 플라스틱시장은 95년 위축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PVC 및 PS

시장은 극동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의 PVC 수요는 낮으나 중국의 구매로 판매가 늘어 안정권에 돌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의 두배 성장으로 서유럽의 PS시장도 2~3%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PP시장도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96년말경 증설이 완료되어 가격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7년 이후 PP는 5~6%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PE가격은 1월말부터 안정권에 들어 2월말 다시 인상되고, 3월 이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 대부분 무기화학제품은 회복양상을 보였으며 96년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iO₂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Dupont은 올해 전세계 TiO₂ 수요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6년 세계 이산화티타늄 수요는 340만톤에 달하고 북미는 120만톤, 유럽은 119만톤, 아시아 82만톤,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는 18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96년 황산시장은 최근 몇년만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계 비료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시장은 수요는 물론 가격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SF Phosphate는 황산공장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산화수소는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무기화학제품으로 95년 생산이 32만5000톤을 넘었으며 96년에는 8~10%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는 펄프표백용 수요가 크게 증가해 폴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회수사용도 늘 것으로 보인다. Dupont, Elf Atochem, Solvay, Degussa 등은 디보틀넥킹을 통한 증설 및 북미지역에 신규공장 건설을 추진중이다.

과산화수소 가격은 94년 3/4분기 이후 파운드당 15센트를 유지해 왔으나 96년에는 점차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1일 기준 일부기업은 파운드당 5센트 인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6년 CA산업은 생산 및 수익면에서 상충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염소 수요와 관련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PVC로 1/4분기 들어 건축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PVC 수요가 크게 늘어나 염소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96년 가성소다의 컨트랙트가격이 FOB Gulf기준 톤당 210~230달러로 출발하고 있으며 스파트가격은 컨트랙트가격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96년 가성소다 가격은 1/4분기의 하향세가 지속되어 톤당 200달러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6년 들어 염소가격도 PVC의 가격약세로 불안정해 컨트랙트가격이 FOB 톤당 130~140달러였으며 스파트가격은 120달러수준을 보였다. Dow · Oxychem · Formosa 등이 지속적으로 증설을 단행해 96년초 기준 총 80만톤의 염소공장이 추가로 건설되며 일부 소규모 기업도 증설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기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투자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 LaRoche, Georgia Gulf 등은 신규 투자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으며, 최대 수요기업인 Bayer 및 Geon 등도 기존 염소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반면 PVC 생산기업인 Westlake와 Shintech은 염소에서 PVC에 이르는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6년 미국의 소다회 내수시장은 정체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은 크게 늘어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다회가격은 96년1월 들어 톤당 15달러 인상하는데 성공해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대수요처의 소다회 구입가격은 FOB Green River기준 톤당 80~85달러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다회사업은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져 95년에 Rhone-Poulenc이 동양화학에게 소다회사업부를 매각한 데 이어 FMC가 20%의 지분을 Asahi Glass와 Nippon에게 매각했다. 96년에도 Tg Soda Ash 및 General Chemical 등이 소다회사업부를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티케미칼분야는 연평균 3~5% 성장해 670억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95년 스페셜티케미칼분야는 수요가 증가하고 수급이 타이트해 가격을 인상하는데 성공했으며 96년

에도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96년에도 이부문에서의 M&A가 활발히 이루어져 합작기업 설립 및 극동아시아 지역에 사업부를 설립하는 등의 현지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M&A는 4~5년전에 이루어진 다각화차원이 아니라 계열화·집중화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페셜티케미칼 분야중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접착제, 향료·향수, 산업용 클리너, 전자용 화학제품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환경규제도 스페셜티케미칼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예를들어 코팅 및 접착제 분야에서 VOC를 대체하는 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페셜티제면활성제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용품용 스페셜티 폴리머, 방균제 등이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96년 Chemicals사업은 95년 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5~7%의 성장이 예견된다. 이 부문은 총 710억달러 시장으로 경쟁 및 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Chemical부문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이 96년에는 7%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첨가제, 전자화학약품, 액정 크리스탈 중간체, 사진용 화학약품, 향료 및 향수 등은 5%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Chemicals부문중 21%를 차지하고 있는 농약은 이 부문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여 1~3%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제초제등이 환경규제의 영향으로 사용이 최소화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바이오테크 관련 화학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산업은 기업간의 합병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으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기업의 진출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Dow는 Custom Synthesis 사업을 시작했으며 Ricerca는 의약품 중간체 시장에 참여했다. Monsanto의 의약품 사업부인 NSC Technology는 의약품 및 살충제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중간체를 생산하는 다목적공장을 건설중이다. BristolMyers Squibb도 서비스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지역에서도 제약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및 동유럽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카페인 생산은 미국·유럽에서 중국·인디아 등 아시아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비타민 및 진통제등도 아시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가 제약의 모국가인 미국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 미국·일본·유럽이 제약시장의 90%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비용의 아시아 제약기업은 일반의약품 시장을 근간으로 지속적으로 세계 제약시장에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95년 의약시장은 5~7%의 성장을 기록했다. 의약산업은 의료비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기업은 생산비용을 20~30% 낮출 계획이며 관련기업간의 합병전략은 의약 및 Fine Chemical기업간의 시너지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의 계열화를 이루어 빠른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6년초에도 대규모 합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합병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5년3월 Glaxo-Welcom이 합병했으며, Hoechst가 71억달러에 Marion Merrell Dow를 인수했고, Rhone-Poulenc Rohrer가 27억5000만달러에 Fisons를 인수했다.

가장 최근에는 Warner-Lambert는 Glaxo-Welcom으로부터 탈각축진 의약품 생산라인을 10억5000만달러에 매입키로 했으며 유럽의 Cossard는 유럽 의약품시장을 겨냥해 유럽 제약기업 인수를 추진중이다.

대부분 제약기업은 OTC(Over-The-Counter : 소매점)를 통한 의약품시장 침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의약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허획득 및 OTC시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96년 농화학산업은 농작물 수확량 증가에 따른 수익증대에 힘입어 마진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96년 농화학시장은 280억달러규모로 1~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농작규모는 8100만에이커로 95년 7100만에이커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북미에서 살충제 매출규모는 80억달러로 3~4% 신장했다. 그러나 95년은 흉수 및 우기로 경작이 위

축된점을 감안하면 96년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초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비료 수요는 95년 2100만톤에서 96년 224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요소 및 질화 암모늄 가격은 세계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해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모니아 가격은 94년 톤당 200~215달러에서 95년 185~190달러로 떨어졌으나 96년에는 안정될 전망이다.

Diammonium Phosphate는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구매 증가로 수출량이 94년 880만톤에서 95년 1090만톤으로 늘었다. 중국은 이중 630만톤을 수입했다.

<화학저널 1996/3/11>